화장품, 완제품 수입 증가추세

95년 기술제휴 생산액 617억원 불과 … 수입액은 1711억원으로 46.7% 급증

국내 화장품 시장은 기술제휴를 통한 자체 생산보다는 완제품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화장품 기술제휴 생산현황(1995)

(단위 : 100만원)

구 분	총생산실적	기술제휴생산액	증감률
코리아나	**89 416**	**15 828**	17.7%
LG화학	**416 339**	**12 124**	2.9
나드리	**140 162**	**9 167**	6.5
쥬리아	**112 949**	**8 645**	7.7
한국화장품	**186 420**	**7 037**	3.8
라 미	**86 378**	**2 759**	3.2
한 불	**78 824**	**2 630**	3.3
금 비	**2 412**	**2 412**	100.0
일진화학	**7 125**	**1 011**	14.2
현대화장품공업사	**1 088**	**20**	1.9
현대화장품	**513**	**17**	3.4
합 계	**1 121 626**	**61 650**	5.5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기술제휴 화장품의 국내생산은 617억원으로 94년 674억원에 비해 8.5%, 93년 731억원에 비해서는 15.6%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3년 화장품 총매출액 1조7405억원 중 4.2%, 94년 2조2513억원 중 3.0%, 95년 2조5564억원 중 2.4%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.
반면, 완제 수입품은 93년 4.3%인 741억원에서 94년 5.2%인 1166억원으로 57.4% 늘어났으며, 95년에는 6.7%인 1711억원으로 46.7% 늘어나 급상승했다.
기업별 기술제휴현황을 보면, 코리아나가 Yves Rocher와 기술제휴해 95년 92억6971만원, Arval과의 제휴로는 60억5921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.
또, Schwarzkopf와의 제휴로 4억9936만원의 실적을 보여 총 158억2828만원 제휴실적을 나타냈다.
이것은 코리아나의 총생산실적 894억1573만원의 17.7%에 해당하는 것이다.
LG화학은 Biersdorfag와의 제휴로 118억5903만원을 생산했으며, Parbel Of Florida와의 제휴로는 2억6526만원을 생산해 총 121억2429만1000원으로 화장품 총매출액 4163억3865원의 2.91%를 점유했다.
나드리는 Benckiser(Coty)와의 제휴로 61억1570만원, Revlon과의 제휴로는 30억5164만원의 생산실적을 나타내 총 91억6730만원의 제휴 생산실적을 기록, 총매출 1401억6226만원의 6.54%를 차지했다.
쥬리아도 고세와 제휴 86억4457만원으로 총생산액의 7.65%를, 한국화장품은 피에르가르뎅·로레알·꾸레즈 등과 기술제휴로 70억3730만원을 생산해 총생산액의 3.77%를 차지했다.

<화학저널 1996/10/14>